

연중 제23주일
200주년 기념주일

기도서 429 면 (C해)

제1독서 : 지혜 9, 13-18

제2독서 : 필레 1, 8a. 10. 12b-17

복 음 : 루가 14, 25-33

숲 정 이

발행처 :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 홍보국
인쇄 : 관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칼 론



어디에 마음을 빼앗 기고 계십니까?

유 장 훈 신부

세상살이 힘들시지요?

지금은 무엇에 쫓기며 살고 계십니까?

남처럼 좋은 일도 하고 싶고,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임에도 참여하고 싶은 심정이야 누구에게나 간절하리라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않은 이일 저일들이 꼬리를 물고 엄습하여 도무지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다보니 다른 것에 마음 쓸 겨를 없이 세월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낮없이 분주하게 살았고, 머리를 싸매면서 골돌하게 지내왔지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다”는 주변의 원망은 겹겹 커져갑니다. 또 사람답게 한 번 살아보지도 못했다는 놚두리는 늘어갑니다. 쫓기듯 사는 삶이었기에 틈이 날 때면 잠시라도 모든 것을 잊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그래서 야구경기, TV, 바둑, 낚시 등 무엇인가 흥난듯 지내버립니다. 도대체 삶의 보람은 무엇이며 더욱이 나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아무리 피로운 세상이라고 말하더라도 이렇듯 무작정 세상을 살아버릴 수는 없습니다. 나를 분명히 알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하며 우리의 인생행로에서 맞이하게 되는 그 많은 고통들의 의미도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200주년을 준비하느라 온통 야단입니다. 곳곳에 성당이며 기념관이 세워지는 것은 물론, 내년 5월이면 교황님을 우리 한국에 모시게 되고, 우리 순교자들의 시성 시복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눈먼 장애인에게 무료 개안수술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복음정신에 비추어 보면서 확고히 하는 정신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찾기 위해 곳곳에서 사목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2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바로 하느님의 백성이고 교회의 일원일진대 결코 우리는 국외자로서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의 신원과 사명을 찾는 은총의 해를 나만이 그냥 넘겨버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일들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200주년을 맞는 내년은 바로 나와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해가 되리라 믿어집니다.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루가 14장 33절)

(교구 사목국장)



9월이 오면

9월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큰 때이다. 그것은 순교자들의 높은 뜻과 용기를 배우는 부자성월이기 때문이다. 또한, 죽음과 맞바꿔 우리에게 물려준 그 값진 신앙이, 우리와 이 사회에서 그 구실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때이기도 더욱 그렇다.

교회는 오늘을 200주년 기념주일로 정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200주년의 깊은 뜻을 새기고, 이날 모아진 헌금은 2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쓰게 된다. 뜻깊은 200주년을 맞아 매우 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일은, 200주년의 참 의미를 찾아 우리 자신의 변화,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는 일이다. 무언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와 이 사회가 하느님의 빛으로 더욱 밝아지게 하는 일이다. 여기에 200주년을 지내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한국 평협(평신도 사도적 협의회)은 그 방법의 하나로 「신뢰회복 운동」을 제시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어느 구석에서 서로 믿고 사는 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 쉽지가 않다. 요즘 사람들의 입술에 올라있는 명성그릇 사건만 해도 그렇다. 검찰이 여러 날 수고해서 조리정연하게 사건의 전모를 밝혔어도, 그 반응은 시원하지가 못하다. 아직도 고개를 가우뚱하며, 왜 그 사람만 그렇게 되어야 하느냐고 되묻는 사람들이 있다. 까딱 잘못 하다가는 오히려 지역감정마저 불러 일으킬 소지마저 있다. 어쩌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것이 참으로 문제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신의 씨앗을 없애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순수한 국민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할 일이다. 실적 보고도 필요없고, 다만 묵묵히 조그마한 일부터 신뢰를 심어야 하는 것이다. 200주년의 열매를 신뢰회복에서 걸우자.

숲 정 이 산책

오늘 주일헌금은
기념사업 자금으로 쓰입니다

□복자 성월

목숨을 버림으로써 영원히 살아

9월은 복자성월이다. 우리의 한국 순교복자들을 기리며 그분들의 굳은 신앙을 본받고 순교정신을 이어받기로 힘쓰는 달이다. 현재 한국에는 1925년 7월 5일 79명의 순교자가 복자품에 오르셨고, 1966년 병인박해 100주년을 계기로 다시 24명의 순교자들이 시복되었다. 내년이면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이 된다. 103위 복자들의 시성이 거의 화질시 된 지금, 그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더욱 새롭게 하여야겠다.

우리 선조들이 하느님의 진리를 접하게 된 것은 300여년 전 북경을 왕래하던 우리나라 사신들이 입수한 한문 교리서를 통해서였다. 그때부터 하나 둘씩 교리를 배우고 마침내 1784년 동지사를 따라 북경에 간 이 승훈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영세를 받음으로써 이 땅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교회는 시작되었다. 이렇듯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선조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지게 됨으로써 탄생하였다. 이점은 세계 어느 교회 역사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점이다. 그러나 초세기 교회가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디딘 때부터 박해를 받아야 했듯이 우리나라 교회도 박해 속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교회가 탄생하던 당시 우리나라는 유교주의적 사회였다. 따라서 천주교를 서학 또는 천주학이라 부르며 처음부터 배척하였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는 우리 민족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또한 몇 가지 신앙 생활을 위한 규범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유교적 풍습과 맞지 않는 것도 있었다. 그래서 유학자들은 우리 교회를 이단

사실, 즉 그릇된 가르침으로 단정, 신자들을 박해하였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남 몰래 숨어서 함께 모여 기도를 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전교하기를 꺼려하지 않았다. 신자들의 이러한 복음전파 활동은 사제없는 이 땅에 이미 수많은 신자를 낳게 하였다. 초대 우리 교회 신자들은 우리 민족을 구원코자 하는 사도들이었다. 박해를 받으면 산으로 숨고, 박해가 좀 누그러지면 숨을 돌리던 우리 선조들, 그래서 한 번도 공공연히 드러내 놓고 성호를 그을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체포되어 관가에 끌려갈 경우 신자들은 양치럼 순교하였다. 1801년 신유교난, 1839년 기해박해, 1846년 병오박해, 1866년 병인박해 등은 수많은 신자들을 처형한 중요한 박해이다.

우리 복자들의 행적을 읽어보면 참으로 눈물겨운 일이 많다. 그들이 받은 어려움과 박해는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느님을 공경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토록 박해를 받아야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 얼마나 열렬했고 뜨거웠던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우리는 복자성월을 지내면서 그분들의 굳은 신앙을 본받으며, 순교자들의 승리를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하겠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성지를 돌아보며, 그분들의 일을 가슴에 새겨 두도록 노력함은 복자성월에 우리가 해야 할 바람직한 행사이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하느님의 뜻에 맞는 신자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농협 조합장 직선제 실시 건 의 문

농협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농협은 농업 발전과 농가 경제 향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날 농협은 제구실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농민과 유리됨으로써 농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렇듯 된 원인은 조합장 임명제와 조합의 사업체제 수립과 집행이 농민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임명권자의 요구에 따라 집행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근본 원인이 있다.

조합원의 대표인 조합장을 농민 조합원이 직접 뽑는 것은 조합원의 가장 중요하고도 정당한 권리요, 의무이다. 이러한 조합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없는 농협을 어떻게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같은 상태에서는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농협의 발전은 있을 수 없으며 농촌사회의 민주적인 발전에도 압적인 요소가 된다.

농민도 마땅히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처럼 자신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임시 조치가 만들어져서 벌써 20년이 넘는 지금 더 이상 「임시」라는 이름으로 이 조치가 남아 있을 명분은 원래부터 하나도 없다. 따라서 그동안 농협의 민주화를 꾸준히 부르짖어온 본회는 조합장 직선제 실시를 갈망하는 전 농민의 요구를 적극 표명키 위한 100만 서명 운동을 전개하면서, 당국이 농협 「임원 임명에 관한 임시 조치법」을 차체에 즉각 철폐하고 조합장 직선제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

1983. 8

한 국 가 립 리 농 민 회

유럽 성지순례 출발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 일 관 광

☎ 6-666~8
조(안토니오) 선

□ 신장개업

대 건 다 방

개업일: 8월 28일
전동 대건신협 지하
☎ 6-4455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김 유리안나(춘형)

【SS】 FASHION 전주 특약점



머 킹 검
로가디스
소사이머



위 크 엔 드
간 이 북



런 던 포 그
세계적인코트의명문



뉴 맨



첼 린 저
주 니 어 북



신주시 중앙동 3가
삼화약국 옆 ☎4451
주인 유 유리안나

200주년 기념

'83년 전주교구 교리 경시대회 성적 일람표

분당	교 리 성 적					참 가 성 적					총 합	
	초등	중등	고등	합 계	순위	초등	중등	고등	합 계	순위	점 수	순위
고건부수신원정대늘오월팔고금삼추창중노덕복서술진파	28.8	60.4	51.3	140.5	32	97	82	78	257	12	397.5	30
창제안류인평읍야동동동마산마례동동양동진자동이동마원관창실주계수안들산안열산등	71.3	61.0	66.0	198.3	16	96	96	81	273	7	471.3	6
불응	61.2	57.5	64.9	183.6	20	100	97	94	291	1	474.6	4
불응	44.3	56.1	80.2	180.6	23	77	87	64	228	25	408.6	28
불응	82.1	74.2	74.5	230.8	5	83	76	74	233	22	463.8	8
불응	65.2	66.1	59.2	190.5	18	99	95	88	282	5	472.5	5
불응	63.5	68.4	62.4	194.3	17	85	94	91	270	10	464.3	9
불응	79.4	72.5	89.0	240.9	1	78	74	66	218	27	458.9	12
불응	47.3	54.5	61.0	162.8	29	86	90	79	255	14	417.8	23
불응	59.1	58.0	60.0	177.1	25	70	65	67	202	32	379.1	32
불응	59.1	50.5	71.1	180.7	22	90	100	98	288	3	468.7	7
불응	50.4	불응	72.7	123.1	36	80	불응	89	169	35	292.1	35
불응	57.9	48.4	61.9	168.2	28	69	85	75	229	24	397.2	31
불응	59.5	76.4	72.3	208.2	11	89	75	83	247	17	455.2	13
불응	73.0	70.9	77.6	221.5	6	81	84	76	241	19	462.5	10
불응	52.8	73.9	74.6	201.3	14	82	68	84	234	21	435.3	20
불응	64.9	66.4	68.2	199.5	15	73	71	69	213	29	412.5	27
불응	91.4	55.9	65.9	213.2	9	67	67	68	202	32	415.2	26
불응	90.4	81.4	68.4	240.2	2	68	69	71	208	31	448.2	18
불응	56.0	63.1	58.6	177.7	24	79	66	82	227	26	404.7	29
불응	92.0	68.9	79.2	240.1	3	74	70	65	209	30	449.1	17
불응	60.9	74.2	80.0	215.1	8	73	72	73	218	27	433.1	21
불응	75.0	71.5	70.8	217.3	7	75	77	80	232	23	409.3	16
불응	59.6	44.3	56.0	159.9	31	94	73	90	257	12	416.9	25
불응	62.1	80.8	60.0	202.9	13	92	92	96	280	6	482.9	3
불응	80.6	78.5	79.1	238.2	4	88	88	97	273	7	511.2	1
불응	85.0	50.7	73.5	209.2	10	87	78	86	251	16	460.2	11
불응	45.6	48.8	74.6	169.0	27	91	81	99	271	9	440.0	15
불응	67.0	64.0	51.6	182.6	21	71	79	85	235	20	417.6	24
불응	84.7	63.5	57.6	205.8	12	95	93	95	283	4	488.8	2
불응	34.7	40.9	56.0	131.6	33	84	89	72	245	18	376.6	33
불응	57.1	63.8	64.0	184.9	19	93	83	77	253	15	437.9	19
불응	48.8	58.5	55.0	162.3	30	98	99	92	289	2	451.3	14
불응	36.4	58.8	76.0	171.2	26	76	91	93	260	11	431.2	22
평 균	63.2	64.0	67.2									

※ 참가성적은 참가 비율 순위에 따라 1위 100점, 2위 99점, 3위 98점...35위 66점으로 체결함.

1. 교리성적 종합순위: 1위-오룡, 2위-북자, 3위-술정이
2. 참가성적 종합순위: 1위-수류, 2위-화산, 3위-교산
3. 초등부 종합순위: 1위-한들, 2위-무주, 3위-임실
4. 중등부 종합순위: 1위-장계, 2위-순창, 3위-임실
5. 고등부 종합순위: 1위-임실, 2위-장수, 3위-장계
6. 전체 종합순위: 1위-임실, 2위-한들, 3위-순창, 4위-수류, 5위-대야
7. 100점 만점: 초등부 86명, 중등부 2명, 고등부 6명

숲정희(在京 奎高 同門會), 성지순례 일정변경

-11일 11시 숲정희에서 미사, 미사후 누갈다 묘지 참배

요심이 (526) 김병오



성골베 신부 성인품 1주년

일본 성지 순례

일본 나가사키 성모기사 수도원 초청으로 교형 자매 여러분의 일본 성지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일정: 1983. 10. 8~15일

회비: 650,000원

신청마감: 9월 5일

신청 및 문의처: 파티마 천주교회 ☎ 0915
전일관광 국제부 ☎ 6666

성 모 기 사 회

학원생 수시 모집(주·야)
절저한 개인지도
V.T.R로 산 교육화

현대 미용학원

전주시서노송동(중앙성당앞)
원장: 김 데레사(금순)
☎ ④ 9206 · ③ 5289

□ 신 장 개 업

미스터 미용실

<남성 헤어디자이너>

· 송 (요아킵) 주현

전주시 고사동 2가1-21
(현대예식장 건물 내)
전화 ③ 5289

조합원 관광교육 안내

1. 일 시: 1983년 9월 11일
2. 장 소: A코스-백제무령왕릉→삼교방조제→아산방조제→도고온천
B코스-수덕사→삼교방조제→아산방조제→도고온천
3. 참가비: 5,000원
4. 지참물: 중식, 타올
5. 대상자: 조합원 및 조합원 직계가족
6. 접수마감: 83. 9. 7. ※ 자세한 사항은 ☎0191~4번
전주 대건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이 종 두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축! 무주 사제관 기공식 및 견진: 오늘 오전 10시
 2. 오늘은 200주년 기념주일: 특별헌금 있음
 3.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5일 오후 8시, 장소-가톨릭 센터
 4. 월요 성서: 5일 오후 8시, 교과과정-이사야
 5. 제 2기 센터 영세자(6월 18일) 사진 촬영: 8일 오후 8시, 장소-가톨릭 센터
 6. M.E 전국 모임: 11일 오전 9시30분, 장소-서울 서강대, 출발-군산 오전 5시, 전주-오전 5시30분
 7. 순교자 유해 순회기도회: 원평-4일, 고산-5일~6일, 삼례-7일~8일, 금마-9일~10일, 주현동-11일~12일, 창인동-13일~14일
 8. M.B.W 교육: 30일~10월 3일, 전착순 28명, 접수처-교육국
- ☐ 축! 영명일: 4일, 성모이세-이 상섭 신부님

(중앙)

전화 ⑥1711~3

주임 신부	문 정 순
보좌 신부	안 철 문
사도 회장	김 인 철

차주전례: 해설-김인식, 독서-①김정원 ②유기준
 ☐ 지난주 봉헌금: 445,850원

1. 사도회 상임위원회: 4일 공식미사 후
 2. 중·고 교리시작: 4일 학생미사 후
 3. 별자방문: 7일, 환자 모신분 사무실에 연락주세요
 4. 상지회 피정: 10일 오후 3시, 장소-강당
준비물-성경·성가책
 5. 자모회: 6일 오후 3시
 6. 추석 합동 위령미사: 21일 오전 6시·오후 7시
교회포지 미사-오전 11시
 7. 목주신공 100만단 봉헌: 474,763원
 8. 셀 자치 평가회: 4일 9시 미사후, 장소-강당
- ☐ 지난주 봉헌금: 875,380원 교무금: 720,00원

(서학동)

전화 ③2276번

주임 신부	김 병 환
사도 회장	한 형 수

1. 사도회 월례회: 7일 저녁 8시
 2. 자모회 모임: 6일 오전 10시 본당회의실
 3. 반장님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4. 유아세례: 매월 첫주일 공식 미사전(9시 30분)
 5. 20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한 기념품 판매: 사무실
 6. 차주전례: 독서-①김낙원 ②차상열
- ☐ 지난주 봉헌금: 256,220원 교무금: 357,000원

(숲정미)

전화 ⑦7366 주임 신부 김 종 길
 수·유 ⑥9567 사도 회장 김 수 길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애령회: 회장-이강노, 부회장-이근창·최승남
총무-이귀례, 회계-장진순
※ 전임 안재주 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령회는 작수월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3. 200주년 기념주일 헌금: 오늘 공식미사
평신도 강론-이규철(오늘)
 4. 구역모임: 6일-진북2동 2·3구,
8일-서신4·5구, 9일-진북2동 6구
 5. 주일학교 개학: 11일 부터
 6. 금주전례: 해설-정주복, 독서-김종환·송용호
기도-이강노·박병열
 - 차주전례: 해설-정주복, 독서-박해근·이귀례
기도-김영태·김정분
- ☐ 지난주 봉헌금: 167,775원 교무금: 423,100원

(노송동)

신부 ⑥0969 주임 신부 김 울 태
수·사 ⑥7032번 보좌 신부 나 춘 성
사도 회장 이 종 재

1.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빠짐없이 참석을
 2. 노송신협 관광교육: 11일 오전 7시 출발,
장소-한의원 경유 합천 해인사, 참가비-7천원,
7일까지 접수 마감
 3. 중학생 모임: 오늘 오후 4시, 예비자를 포함한 모든
중학생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4. 200주년 기념주일: 오늘 특별헌금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져가신 봉투에 정성을 모아 주세요
 5. 구역모임 교체 가져가세요: 9월분 교재를 못가져 가
신 구역장님은 사무실에서 가져가세요
- ☐ 지난주 봉헌금: 397,380원 교무금: 243,000원

(덕진)

신부(3)2182 주임 신부 김 봉 회
전화 수녀(72)7122 보좌 신부 정 양 현
사우(72)6259 사도 회장 양 상 열

1. 구역 반장 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
 2. 구역 형제회(반모임) 개최 일정
5일-덕진 1반 이준민씨 집에서, 2반 오복용, 3반
이영애, 금암1 정두희, 6일-덕진 4반 황양금, 5반
김애기, 6반 양상열, 금암2 박봉린, 7일-덕진 7반
김정자, 8반 한춘자, 9반 박장춘, 금암3 김명순,
9일-덕진 10반 박귀순, 11반 이말다, 12반 유대희,
금암4 김효순, ※ 사도회 일원 참석 지도 바람,
반모임 동안 저녁미사 없음
 3. 까리따스 자모회 월례회의: 6일 오후 2시
성심 부녀회 월례회의: 7일 오전 10시
 4. 주일학교 개학: 오후 2시, 합주미사 있음 악기 지참
 5. 예비자 교리반 안내
주일 11시 50분-일반(김수녀 지도)
화요일 오전 9시-할머니, 10시 주부(김수녀 지도)
수요일 저녁 8시-학생, 젊은이(정신부 지도)
목요일 저녁 8시-직장인(김진부 지도)
금요일 저녁 8시-주부 및 일반(강수녀 지도)
- ☐ 지난주 봉헌금: 425,160원 교무금: 392,000원

(전동)

신부 ⑥6208 주임 신부 김 병 일
전화 사우 ③3222 보좌 신부 박 찬
수우 ⑥8347 사도 회장 이 종 길

- ※ 오늘은 200주년 기념주일: 특별헌금 있습니다
1. 사도회: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 학생미사 후
 3. 자모회·장우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자모회 1일 피정: 7일-전동 성당
 - 자모회 총회: 8일-전동 성당
 5. 섬마리아 뿌리아: 다음주 오후 2시
 6. 클로리아 섬가대 단원모집: 연락처-사무실
매주 목·금요일 저녁 미사후 연습 있음
 7.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이준영, 독서-①최정식 ②최종환
공식미사: 해설-박중우, 독서-①이영희 ②백중호
저녁미사: 해설-김지선, 독서-①정동희 ②이승호
- ☐ 지난주 봉헌금: 608,600원 교무금: 422,000원

(파티마)

신부 ⑥0915 주임신부 김 영 일
수녀 ⑥4804 사도회장 황 회 상

- ※ 오늘은 200주년 기념사업 봉헌주일 정성껏 바칩시다
1. 뿌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2. 사도회 월례회: 오늘 저녁 미사후
 3. 9월은 복자성월: 103위께서 시성 되도록 기도합시다
 4. 성지순례 중이신 본당 신부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5. 교무금 미납된 신자들은 속히 교무금을 완납합시다
※ 수녀원 축대 공사비등 본당운영에 어려움이 많음
 6. 레지오에 가입하여 선교에 열정합시다
 7. 8월말 결산보고: 총수원-22,974,842원
차용금-1,000,000원 총지출-23,972,923원
잔액-1,919원
- ☐ 지난주 봉헌금: 223,000원 교무금: 270,500원

(복자)

전화 ⑥5238번 주임 신부 권 영 균
사도 회장 조 성 호

1. 부녀회·빈첸시사회: 5일 어머니 미사후
2. 성우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3. 수녀원 신축헌금: 10만원-육배수·박중현, 7만원-
이명, 5만원-오영열, 3만원-이옥련, 2만원-박준
호·이정우·김영환·공미순, 1만원-이영애·임종
길, 1천원-박귀례, 누계-5,093,500원
4. 겪진 받으실 분 신청 바람
5. 평론군대 성모 마리아 신심 세미나: 성향리에 맞춰
6. 금주전례: 해설-이명래, 독서-①이정진 ②장동민